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태양의 빛발은 삼천리에

태양의 빛발은 삼천리에 눈부시리라!
세월이 무궁토록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영원한 태양으로 길이 빛을 뿌리시며

세월이 가도 태양의 빛과 열은 변함없듯이

우리 겨레가 모시고 살아왔던가

얼마나 위대한 은인 자애로운 어버이를

못 잊어 뜨겁게 새겨보는 태양절

바쳐오신 그 열애 그 헌신의 자욱자욱을

한평생이 강토이 민족을 품어안으시고

아, 김일성대원수님

다함없는 흠모로 우러르는

만발한 화원속에 웃으시는 태양

태양절 이 봄날 꽃으로 피여났는가

민족의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들이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민족과 세인이 우리러 청송하는 절세의 위인이 탄생하시어 어느덧 102돌기의 년를 새긴 뜻깊은 태양절이 왔다.

세상에 민족적 및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명절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태양의 이름으로 빛나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태양절, 여기에는 오늘도 태양으로 빛나시는 하늘이 낸 위인을 모신 민족의 절세위인의 애국의 크나큰 뜻과 업적, 위대한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어 가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동방조선에서 솟아오르신 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고종대서 력사의 갈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공적을 쌓은 이름있는 정치가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있지만 수령님처럼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신 그릇된 결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은 없다.

일제기 10대의 시절에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시대 인간유명개척의 보검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선군혁명론을 제시하시였으며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으로 조국해방의 봄을 안아 오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혁명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혁명의 주인을 인민대중이라고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사상을 밝혔다고, 이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도 하고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3년간의 반미대전도 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서서 인민의 이익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신 수령님이시였기에 해방후 이처럼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건당, 건군, 건국의 역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었으며 청소년 공화국을 요람기에 알살하려고 미국이 15개의 주종국가까지 끌어들이면서 감행한 무력침공도 단호히 쳐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할수 있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포크로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 우리도 그것을 사용할수 없다고,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밥과 국을 먹기때문에 숟가락과 저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것이 제일 좋다고, 다른 나라의 전법도 이와 같은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고 통속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주체적립법을 창조하시어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미제와의 전쟁도, 전후복구건설도, 사회주의공업화도 철두철미 조선식으로 해나가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미국이 100년 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고 떠들던 채터미숙에서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남들은 수백년이 걸렸다는 공업화의 력사적과제를 불과 14년만에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1960년대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로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었던 주체적로선이다.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대처하는 조선혁명가들의 립장과 본래 대한 원칙적문제이라고 하면서 경제건설도 100%, 국방건설도 100%하는 원칙에서 밀고나 가도록 해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의 존엄이 굳건히 수호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자주의 신념과 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장이 있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조국정신의 강자로 자라났고 자신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가 확고히 선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이민위천, 이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애 관통되어있는 좌우명이고 정치신조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불멸의 글발을 회고록의 갈피에 새겨넣으시어 후대들에게 귀중한 재부로 물려주신 김일성주석 이시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여도, 하나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여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서 출발하시였기에 언제나 대중의 지지를 받고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북방의 두메산골, 분계연선마을 등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찾아가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방후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이오신 현지지도로정은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1회나 왕복한것과 맞먹는 144만 5000여리에 달한다. 그 나날 수령님께서서는 무려 2530여일의 일요일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생애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시어 이 땅위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애국의 한생이였다.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있었다.

민족의 원시조 단군신화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한 사실일것이라고 하시면서 단군이 물려있을수 있는 위치도 알려주시고 단군이 고조선의 시조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는 그리도 기뻐하시며 단군릉을 웅장하게 개건하도록 하시어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력사를 더욱 빛내주신 수령님이시다.

외세의 강요로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할수 없었던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통일의 앞길을 활기 밝혀주시고 온 겨레를 묶어세워 거족적인 조국통일대행진을 합치게 추동해오신 아버지수령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애국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광복의 정치에 매혹되어 수많은 남달린사람들과 해외동포들이 평양으로 달려왔고 통일이국의 길에서 값있는 생을 보낼수 있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우리들이 김일성주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는 어떤 리론이 아니라 그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인류가 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시다.』고 칭송하였다.

태양의 위업은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승리하고있다.

언제인가 뜻깊은 태양절날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설속에 위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위인속에 전설이 있다고,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전설적영웅이시며 위인은 영생한다고, 수령님은 사상으로 영생하시고 업적으로 영생하시며 덕성으로 영생하신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조국과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그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신분이 바로 회세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민족자주위업을 령도하시는 길에 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탁월한 정치실력과 령도풍모를 체득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회세의 위인이 계시어 조국의 존엄은 굳건히 수호되고 건설에서 최고전성기가 펼쳐졌으며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백두의 슬기와 기상,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강생이 아니라 그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인류가 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시다.』고 칭송하였다.

백두의 슬기와 기상,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강생이 아니라 그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인류가 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시다.』고 칭송하였다.

자주통일의 기운이 온 강산에 차넘칠수 있었다.

오늘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 애국의 진로를 명시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혹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빛나게 이어가게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날로 가증되는 미제의 침략위협소동에 대처하여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고 령도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회세의 위인이 계시어 조국의 존엄은 굳건히 수호되고 건설에서 최고전성기가 펼쳐졌으며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태양은 오늘도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그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속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래에 대한 낙관과 승리의 신심을 가득 담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기세차게 전진해가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은 머지않아 천하제일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멀리 떨어진 자식생각으로 잘못이루는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슬하를 떠난 자식이 어디에 가 밥술은 제대로 드는지, 옷은 철따라 입는지, 알지는 않고 건강히 지내는지 늘 원심을 기울이는것이 육친의 정이다.

한평생 애국, 애족을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민족의 한식술인 해외동포들이 있었다.

이역만리에 사는 해외동포들을 위한 국가예산 항목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지난 세기 조국해방전쟁이 끝난후 전쟁의 참혹한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나라의 재정사정은 매우 심각했다. 어에서나 요구되는것은 자금이였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때 국가예산조안을 따져보신 수령님께서서는 제일동포 자녀들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를 상정시키시면서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고, 장학금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 두어서는 안된다고,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국가 예산에 새로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세계 그 어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국가예산항목이 나오게 되었고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 때나, 나라의 정세가 아무리 긴장할 때나 가림없이 년년이 그 항목은 꼭꼭 집행되었다.

제일동포자녀들이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라고 나라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160차례 걸쳐 473억 3115만 390원에 달하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혜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주체78(1989)년 9월 어느 날이였다. 그날 조국을 방문한 안동수령사의 미망인인 재로씨야 정일심동포일행을 만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화기애애한 동포애의 정이 흐르는 오찬회석상에서 좌중을 일별하고,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우에 안동수의 술잔을 하나 더 가져다놓고 술을 붓도록

하라고 이르셨다. 그러시고는 우리 먼저 안동수동무를 추억하여 그리고 안동수동무의 부인과 아들, 딸, 사위, 손자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하시며 자신의 술잔을 안동수의 잔에 짚으셨다. 비록 안동수동무는 수십년전에 세상을 떠났으나 고인의 술잔에는 한없이 숭고한 덕망과 고결한 의리가 담긴 사랑의 술이 찰랑거리고있었다.

민족의 넋을 이은 사람이란 그가 어디에 사는 동포이든 집 떠났다 돌아오는 자식을 대하는 친부모의 정으

로 대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1(1982)년 10월 조국을 방문한 조국통일축전회 회재로씨야 정일심동포일행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해외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선생은 오래 앉아있어야 한다고,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우에 안동수의 술잔을 하나 더 가져다놓고 술을 붓도록

이 할것을 기대하고있다고 하시며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또 선생과 부인이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고 자식들이 조국에 대해서도 잘 알도록 하자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뜨거운 육친의 정을 기울이시였다.

평양에 있는 윤이상음악당에도 한 해외동포음악가의 재능과 소원을 헤아리시여 음악회도 열도록 하고 음악연구소도 개설하도록 하시어 수령님의 대해같은 동포애의 보살핌이 뜨겁게 깃들

어있으며 평양의 애국렬사릉에도 최흥희, 최홍희, 안동수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에게 죽어서도 영생하는 생을 누리도록 보살펴주신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의 손길이 어리석었다. 언젠가는 동포사공인들의 애국심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면서 국가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기업활동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였고 그들이 판로가 막혔을 때에는 조국에서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도록 하시어 수령님이시였고 때로는 그들의 기업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을 조국에서 가져다 쓸수 있도록 대책도 취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민족이 흠어지게 된 천태만상의 사연이나 그리고 거주지나 정견과 신앙, 불미한 과거지사나 생활경위를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해외동포라면 그가 누구이든 대해같은 덕망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오늘날 해외동포들과 함께 계시는 민족의 영원한 구성이시고 아버지이시다.

본사기자 리 설

할아버님의 꿈이야기

만경대에 귀인이 내린다는 소문이 나돌던 그무렵 산당집 김보현할아버님의 꿈이야기가 마을사람들속에 전설처럼 나돌았다.

어느날 할아버님께서 밤에 신기한 꿈을 꾸시었는데 그 꿈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농가들의 굴뚝에 아침연기도 실리기전인 어둑새벽에 할아버님께서는 만경봉에 무저놓은 나무단을 저 내려오려고 사림문을 나서시였다.

사위는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캄캄하였으나 늘쌍에 안아보고싶은 총동이 일어나 두팔을 벌리면서 달려나가지였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산중턱에 이르시였을 때 갑자기 앞이 흰해져서 살펴보니 만경봉에서 무슨 빛이 흘러내리는것이였다.

어인 영문인가 곁을 다 우치시여 불우리에 올라오니 만경봉의 넓다란 공지

에 대엿자족의 등그런 방식이 놓여있었는데 거기서 눈부신 빛이 뿜어나와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있었던것이다.

옛말에 금방망이란 말이 있었기에 혹시 금방망이가 아닌가 하여 자세히 살펴서던 할아버님은 또 한번 놀랐다.

그것은 금방망이가 아니라 분명히 금방석이었는데 그가운데 톱뿔처럼 생긴 옥동자가 집잡게 앉아서 만경대를 굽어보는것이였다.

할아버님께서는 옥동자의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불시에 안아보고싶은 총동이 일어나 두팔을 벌리면서 달려나가지였다.

그런데 그만 나무가지에 지게다리가 걸리였다.

할아버님은 안간힘을 쓰며 당기였는데 나무가지가 꺾여지는 바람에 무릎방아를 짚게 되시였다. 그러나 옥동자를 잃을가보아 아픔도 잊고 벌떡 일어나보시니

꿈이었던것이다. ... 이 회한한 꿈이야기를 식구들에게 들려주시며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지난밤 꿈에 금방석에 앉아있는 옥동자를 보았는데 옛적부터 은은한 달에 비기고 금은 해에 비기면서 은금을 보배로 여겨왔는지라 ... 이 산당집에 해가들 정조가 아닌지 모르겠다.》

자고로 위인, 명인들이 출생할 때에는 그와 관련한 기이한 일화들이 전해지곤 하였다.

아마 그래서 위인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범상치 않은 인물로 공인되는것인지도 모른다.

할아버님께서 그 신기한 꿈을 꾸신 때로부터 열

본사기자



장시

통 일 의 래 양 으 로 영 원 하 시 리

김 태 룡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수령님 꽃이 피어 만발한 이 봄날은 아, 그리움의 4월 그리움의 봄

매일씩 흰서리를 엮으신 수령님 가물든 남녘의 대지 눈가에 어려와 드셨던 수저마저 놓으신 날도 있어라 재해를 당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뜬눈으로 꼬박 지새신 밤도 있어라

시던 그 숭엄한 걸음걸음을 내 경건히 따라서노라 궁전에 들어서시어 수령님 계시는 곳까지 그 길은 비록 길지는 않았어도 수령님 통일의 한생 그 못 잊을 해와 달을 원수님은 마음속에 다 걸어보지 않으셨던가

이런 험한 길 이런 밤길을 천리든 만리든 가겠다 하시며 쉬임없이 걸으신 그 길에 새겨진 뜻깊은 사연 얼마이던가 분계연선의 자그마한 마을 가족과 생리별을 당한 너인의 가슴에서 설음과 울분을 가져주시며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그 사랑

의 친필비 한글자한글자 주의깊게 바라 보시며 그토록 깊은 감회에 젖으시어 수령님의 통일업적 뜨겁게 회고하시었어라 추억깊이 하시는 말씀 생의 마지막박동까지 통일에 바치신 수령님의 그 위대한 숨결을 한가슴에 깊이 새겨보시며 친필비를 우러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뒤으신것은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이라고 원수님 뜨겁게 새겨놓으시었 나니 수령님의 후더운 체온 원수님의 손길에서 더 뜨거워 지고 수령님의 거룩한 통일영혼 원수님의 뜻에서 더 굳건히 이어지는 통일의 붓대

밀려오는 전쟁의 구름 막아내 시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여주신 위대한 령장의 그 은공 겨레의 안녕을 지켜 준 그 사랑은 수령님과 장군님 한생 지퍼오신 겨레사랑의 불길 수령님민족 장군님조국 한가슴에 다 품어안으시고 태양의 통일위업 곳곳이 이어 가시는

간절하신 그 마음으로 한송이한송이 피워오신 꽃 여기 금수산태양궁전 수령님 앞에 경모의 꽃바구니로 드리셨나니

은 나라 인민이 축원의 인사를 드리는 4월의 봄명절 탄생일조차 남녘의 겨레가 정말 보고싶다 시며 마음속 아픔을 덜지 못하신 수령님

북도의 벽면에 모셔진 수령님 영상들 오실적마다 비오는 모습이면만 볼수록 가슴껏게 안겨오는 영상 한상한상 보고보시며 마음속격정 크셨을 원수님

북방의 철의 기지 남녘에 고향을 둔 로동자를 만나시어 일을 잘하라고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 라고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그 믿음

통일은 바야흐로 다가왔다고 그처럼 기쁨에 겨워하시며 한자한자 수령님 새기신 친필 그 붓이 아니었더냐 겨레가 살길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불멸의 통일대강을 써나가시던

수령님의 그 소중한 붓으로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원수님 그 붓은 그대로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위업 출기차게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통일계주봉!

김정은 그이제는 철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 흙모와 경모의 물결 끝없이 밀려 오는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수령님의 모습으로 장군님의 손길로 원수님 안아주시는 남녘과 해외의 동포들

아름답게 피어난 꽃송이꽃송이... 잎에 있어는 타는듯 어리여있는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 내 감히 붓을 잡고 들어서노라 그이의 깊으신 심중속에

새 공장 새 거리가 일떠설 때면 그 기쁨 남녘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싶으신 심정 절절하신 그 소망을 수령님은 언제 한번 잊고사신적 없었어라

수령님 서계시는 푸른 논밭은 가물든 남녘을 걱정하시며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신 그 논밭은 아인가 깊은 밤 어둠을 헤쳐가시는 모습은 멀리 분계연선마을로 떠나시던 그 밤의 모습이 아니던가

그렇게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80고령의 년세에도 수령님 쉬임없이 걸으신 통일의 길 겨레여, 그렇게 수령님은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치 시었어라

한생 놓지 않으신 붓 생의 마지막날까지 놓지 않으신 붓 그 붓은 력사의 갈피에 놓여있 던가

태양절정축 열병식장에서든 뜻깊은 새해 2014년의 신년사에서든 그이는 밝혀주시었어라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란 다면 그가 누구든 함께 나아갈것이 라고

그이의 인덕에 매혹되어 그이의 인품에 끌리어 그들이 하나같이 터진 걱정 원수님은 그대로 김일성주석님

수령님 조국통일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침묵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류다른 이해의 봄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여 오신 수령님생각 얼마나 간절하시라

그래서였던가 수령님을 찾아오는 남녘과 해외의 인사들 그들을 만나실 때면

소중한 영상 그 한상한상은 그대로 수령님의 통일한생 언제 한번 멈추신적 없이 낮이나 밤이나 비오나 눈이 오나 헤치신 수령님 통일현신의 그 자욱자욱

수령님의 그 헌신 그 심혈을 가슴에 뜨겁게 새겨보시며 수령님령전에 이르신 원수님 생각깊이 이르신 걸음 여기에 멈춰서시는가

오늘도 원수님 마음속에 소중한 그 붓이

이것은 그이의 변함없는 의지 그 의지를 안으시고 겨레를 통일의 길로 이끄시는 원수님 언제나 통일의 진두에 계시던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그이는 통일의 최진두에 계시다

수령님 바라신 조국통일 장군님 녀민한신 하나로 된 조국 그 통일강성대국을 안아오시고 태양절 4월의 봄날 우리 원수님 태양의 궁전에 오시려나

통일, 통일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회여진다고 조국이 통일되면 10년은 젊어질것 같다 하시던 수령님 원수님 못 잊으시는 그 말씀이여

그리운 동포들을 다 안으시듯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 부어주시는 사랑 베푸신 은혜 이 봄날의 천만꽃에 비기랴 저 푸른 봄하늘에 비기랴

해방의 첫 기술에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길고걸으신 통일의 길 한생의 그 어느 하루도 아니 걸으신적 없었나니

수령님!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이루고야말겠습니까

그 붓으로 원수님 쓰시었어라 수령님탄생 100돛을 맞는 뜻깊은 그 4월에 수령님업적 만대에 전해갈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무도와 장재도 월내도 관문점과 오성산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최전방중의 최전연초소들에 서슴없이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인덕에 매혹되어 그이의 인품에 끌리어 그들이 하나같이 터진 걱정 원수님은 그대로 김일성주석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어 수령님 우러르실 때마다 원수님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신 수령님의 그 흰서리흰서리

태양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서도 궁전광장의 공민길을 걸어도 동포들을 반겨 맞아주시던 수령님 태양의 그 영상이 눈부시게 안기어 오거니

사람들이여 이 땅 어디든 그대들 서보라 겨레의 숙원 통일을 이루시어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수령님 현신의 그 자욱자욱이 있다

수령님!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이루고야말겠습니까

수령님은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 었다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어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환희의 봄 감각과 걱정으로 풀어번질 그 봄날이여 아, 아버지수령님은 정녕 그 봄날속에 통일의 태양으로 영원하시리라!

언제나 통일을 생각하시며

가르쳐주신 통일의 진리

주제 82(1993)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재미동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주제 79(1990)년 8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셨던 대표들을 친히 뭉가까이 불러주시었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대표여러분들은 해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 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에

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또한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인것만큼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뭉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날 대표들은 명확한 통일방도로 민족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며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의 구성 김일성주석》

스위스단체 인터넷에 특집

태양절정축 스위스준비위원회가 3월 16일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에

사랑은 끝이 없었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은 김일성주석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남생일에 병원을 찾으시어 남생일을 만나주시던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어려오군 한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남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리인모동무는 원수들의 온갖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켜 용감히 싸워 이겼다고, 조선로동당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숭고한 품도를 온 세상에 피시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칭하를 주시며 자신께서 몸소 수표하신 당원증을 수여해주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져있는 금시계를 채워주시었다. 그리신 다음 남편을 앉히고 자신께서 그에게 서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

수기

우리 집에는 가보처럼 소중히 전해오는 사진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1년전인 주제82(1993)년 4월 15일 위대한 김일성태원수님께서 몸소 저의 남편(리인모)을 찾아주시어 함께 찍어주시는 사진이다. 이 사진을 우러러볼 때면 만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자신의 탄생일에 병원을 찾으시어 남생일을 만나주시던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어려오군 한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남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리인모동무는 원수들의 온갖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켜 용감히 싸워 이겼다고, 조선로동당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숭고한 품도를 온 세상에 피시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칭하를 주시며 자신께서 몸소 수표하신 당원증을 수여해주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져있는 금시계를 채워주시었다. 그리신 다음 남편을 앉히고 자신께서 그에게 서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못 잊습니다

가장 값있는 인생증서이기도 하였다. 수십년세월 쇠고랑을 차고 매없이 감행되는 뒤를 기고문에 빠가지 랄린 가는 팔뚝에 채워주신 금시계, 그것은 정치적생명의 은인인 아버지의 심장에 숨결을 맞추며 영원히 변치 말고 총성의 한결을 걸으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불변의 태연으로 삼아 들고도는 인생박동기였다. 하기에 남편은 그날부터 어느 한순간도 사랑의 금시계를 벗어놓거나 붉은 당원증을 몸에서 떼어놓은적이 없었다. 남편은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어린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 금시계의 초침소리에 온넋을 가다듬으며 《우리는 수령님이 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를 비롯한 글들을 집필하곤 하였다. 그야말로 《숨쉬는 화석》, 시체 아닌 《시체》

로 관문점분리전을 넘어섰던 남편이 이후 14년간 행복과 영광의 최절정에 떠받들려 90장수의 전설같은 삶을 누릴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이 불사약이 되고 정신적자양이 되었기때문이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한 인간의 삶을 보살펴주고 구원해주는이는 귀인이요, 삶의 길을 터여주고 비쳐주는이는 스승이며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주고 운명을 개척해주는이는 위인이라 하였거늘 위대한 수령님과

이시다. 이제는 남편이 떠나간지도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위인들의 사랑과 더불어 남편은 애국렬사릉에서 오늘도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내가 87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있는것은 인간의 삶을 보살펴주고 구원해주는이는 귀인이요, 삶의 길을 터여주고 비쳐주는이는 스승이며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주고 운명을 개척해주는이는 위인이라 하였거늘 위대한 수령님과



김순임

민족의 대경사, 강산을 진감하는 환호성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열의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온 나라의 련일 명절 분위기에 힘입어 꽃피는 기쁨과 환희가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은 그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오직 원수님만을 따라 끝까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최세의 결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평등하는 기간에 보통의 정치가가 수년, 수십년을 이어가면서도 이룰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셨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악과 같은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지략

을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밀려오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온 민족이 대극상을 당한 피눈물이 아득도 채 가시지 않았던 그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해오려고 때를 만만듯이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적대세력의 온갖 어리석은 망상은 또 한번의 천출위인을 모시어 산산히 부서졌다.

인민구조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자위의 제3차 시험성공으로 공화국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판문점과 장제, 무도영양방어대를 비롯한 최대열점지역들에 끊임없이 이어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진시찰은 침략세력이 사회주의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없애고 달려들던 단호히 오정대버릴 선군조선의 단호하고 역설 기상을 내외에 시위하였다. 하기에 세계의 언론들도 그이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변만화하는 군사

적지략에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으며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조선의 국력과 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현란한 묘기들을 보여주는데 대내, 대외를 가리지 않고 분석하면 그 특징이 변화무쌍이다.》라고 경탄의 목소리를 높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에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화원을 펼쳐주시어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창건지리 살림집들에 입사한 교육자가장, 노동자가장, 신혼부부가정을 방문하시어 사랑의 축배도 부여주시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켜 행복의 요람들을 거듭 찾으시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음악회와 체육경기도 관람하시어 원수님의 육친의 정과 같은 사랑속에서 이 땅의 날과 달이 출렀다. 그이의 현지지도창정에 펼쳐진 이런 가슴뜨거운 현연일체의 화폭들은 사랑과 정과 의리로 융합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백배해주었고 세계를 감동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

고 세련된 코드일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눈부신 비약과 전진이 이룩되었다.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져 창전지리, 은하과학자거리,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편이어서 일떠서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도처에 솟아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은동지는 자기 실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전방사업을 쉽게 틀어쥐실수 있고 따라서 누구나 그를 따르고 그의 지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확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사상리론적예에서도 으뜸이시고 평등적수완과 평등방면에서도 최고이시며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계시며, 철학과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풍습으로부터 건축과 산업미술, 음악과 체육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이르기까지 환히

재능과 모든 문제들에 가장 명철한 해답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실력은 온 세상을 경탄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을 평등해오신 날에 사람들은 그이의 출중한 위인상, 뛰어난 정치실력과 명칭의 인품에 반했고 그의 령도를 받들 때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로도 조국통일도 반드시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변함없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체제와 일심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었으며 강성국가건설과 문명국건설을 확신성있게 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기쁨과 긍지를 안고 그이의 평등과 더기 세차게 신심드높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우렁찬 환호성은 온 하늘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리용범

인민의 꿈과 희망이 만발하는 꽃으로

봄이 왔다. 화창한 봄날이 향긋한 기운을 풍기면서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안고 찾아왔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울레에는 류달리도 빨리 불어와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누구나 기쁨에 넘쳐 자원이 주는 이 크나큰 혜택을 한껏 감상하고있다.

만발한 꽃의 세계, 해마다 이 땅에 봄은 오고 꽃은 피지만 울레의 봄은 어이하여 남다른 감흥을 안겨주며 찾아온것인가.

아름다운 저 꽃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꿈과 희망을 한껏 더 부풀게 하여주는 화창한 봄의 정서이다.

꿈과 희망,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너무나 세사롭게 쓰이던 이 말이 오늘 공화국에서는 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며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천출위인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얼마전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여 민족의 기쁨과 환희는 강산에 차넘치고 겨레는 자주통일을 향해 더욱 확신성있게 나아가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삼천리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노력해갈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누구나 행복감과 환희에 젖어 오늘의 현실을 말하고 더 아름다워질 레일을 그려보며 가슴이 벅차도록 꿈을 이야기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만 놓고보아도 얼마나 많은 꿈과 리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는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 하나하나 꼽아볼수록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긍지로 자랑할 끝없이 변영하고 행복할 미래의 축도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부른다.

나날이 변모하고 흥하는 현실을 보며 이 땅의 남녘로소 누구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인민의 만발이 꽃피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결코 먼 앞날이 아니라는것을 가슴부듯이 체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금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실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은정과학자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시신 위성과학자거리가 일떠서고있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하루가 다르게 차고있다.

동평양지구에 인민들의 편의를 위한 현대적인 상업거리가 일떠서고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과 함께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되고있다. 새로운 12년제 무로외교대학이

올해의 새 학기부터 시행되게 되어 뜻깊은 이 4월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있다.

력사의 기적은 민족의 천만년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예지와 만능의 실력, 강철의 의지를 지닌 결출한 령도자만이 안아올수 있다.

절세의 위인, 창조물 거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꽃피워지는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 온 나라 인민이 세상부러울것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회주의대화원을 이 땅우에 일떠세우실 승고한 꿈을 안으시고 불철주야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걸고계신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만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의 세상을 현실로 펼칠수 있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함으로써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는 공화국의 앞길에 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누구나 환희에 넘쳐 봄의 정수를 마음껏 즐기는 이 4월, 위대한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리며 이 땅우에는 머지않아 인민의 꿈과 리상이 더욱더 현실로 펼쳐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일떠세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자주통일의 그달을 기억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더욱더 그리워지는 어버이수령님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환생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강그리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생이었으며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애국애족의 빛나는 생이었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 통일문건에 친필을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있다.

태양절을 앞두고 전체 공화국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속에 사상과 품도, 령도와 인덕에서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또 한번의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

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획기적전결을 일으키며 조국통일과 민족민족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뜻깊은 사변이다.

민족의 대경사속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은 지금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전체 성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구원을 기어이 열어나갈 불타는 결의와 신심에 찬탄되어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우리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은 모두 현실로 꽃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필생의 념원으로 간직하신 조국통일의 령사적위업도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원경일

애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태양절을 맞은 지금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일군들과 교인들의 가슴가슴은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쳐있다.

겨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애국의 심장의 마지막박동도 통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미여진다.

그이께서는 불멸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헌당도 겨레에게 안겨주시었고 승고한 민족애와 바다같이 넓은 도량으로 온 겨레를 품에 안아주시고 조국통일의 주제로 내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일군들도 몸소 만나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배려

를 다 돌려주시였다. 정녕 품은 복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안아주는 통일애국의 품이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천출위인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얼마전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여 민족의 기쁨과 환희는 강산에 차넘치고 겨레는 자주통일을 향해 더욱 확신성있게 나아가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삼천리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노력해갈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 사진전시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만 조선문화전동 《로인》협회가 3월 30일 협회청사에서 사진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해외동포들을 접견해주시는 사진문헌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령사적인

여있었다.

주영일 협회회장과 고대춘부회장, 《통일》신문주필,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주영일회장이 발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진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어있었다.

주영일 협회회장과 고대춘부회장, 《통일》신문주필,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주영일회장이 발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진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위인칭송의 마음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쳐

*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고 *

지금 평양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4월의 봄과 더불어 열여섯 번째 년를 새기며 성황리에 열리는 김일성화축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찬세만세 높이 모시며 그이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고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2만 3 000여명의 태양의 꽃들과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특색있게 장식된 축전장에는 민족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모셔져있다.

꽃축전장에는 공화국의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다해 피운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일조문화회》 대표 가메다 노보루,

일본 에히메 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카시, 항일혁명렬사 장물화가족일행, 중국 길림육문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나라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지성이 어린 김일성화들도 있었다.

김일성화축전장에서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전시대였다.

전시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영인한 태양으로 우리러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경모의 정이 어린 600여명의 김일성화가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령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들이 되는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지향을 담아 전시대우부분에는 통일친필비블, 아래의 기본들에는 김일성화로 조 심되도록 형성하였다. 그리고 전시대들에는 주석을 민족의 어버이로, 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

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끝없는 흠모와 정성의 마음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화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시대의 맨 앞부분에 형상된 조국통일3대헌당기념탑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민족의 해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평명정대한 통일로선과 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분할부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겨레의 어버이, 통일의 구성이시다.

국제고통련위원장 석명손, 범민련독립국가협동체 지역의장 조운해, 우즈베끼스만 고통련 위원장 주영일, 우즈베끼스만고통련 부위원장 고대춘, 국제고통련기관 지신본 《통일》주필 석미란, 국제고통련모란봉예술단 단장 김미숙과 가수 남별동포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즈베끼스만, 로씨야에서 사

는 해외동포들의 지성이 어린 한떨기한떨기의 태양의 꽃을 보면서 우리는 이역만리에서도 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며 사는 그들의 끝없는 경모심과 아울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그 길에서 애국충정을 다해가는 예국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축전장에서 만난 재중동포 김영심은 오늘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고 조국동포들과 해외동포들, 인류의 다함없는 정성과 흠모를 받으시는 절세위인을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꼈다고, 또 한번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민족과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을 해외에서 더욱 힘차게 벌려나갔다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천송이만송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 풍기는 김일성화축전장에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는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강철

위인칭송의 태양찬가여 끝없이 울려퍼지라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성대히 개막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개막식이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참가자들이 개막식장에 도착하자 녀성취주악단의 경쾌한 주악에 맞추어 부채춤, 장고춤, 교예 등이 이채롭게 펼쳐져 개막식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가자들에게 꽃송이를 안겨주는 속에 이번 축전에 참가한 예술단체들이 소개되었다.

개막식에는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장 김용진내각부총리,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철 문화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외국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대사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은은한 노래선율속에 우리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아름다운 춤무대를 펼쳤다.

무대화면에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을 접견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대원수님들의



고매한 품도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자 장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끓어번지였다.

한철 부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조국찬가》 노래선율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

전 기발을 게양하였다.

이어 축전개막공연의 첫 지휘자인 로씨야내무성 내무부 아카데미야호주단 단장 워프르 엘리제베브가 발언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지금 평양시내의 극장들에서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공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고매한 품도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자 장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끓어번지였다.

한철 부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조국찬가》 노래선율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



↑ 월남국립기무극장예술단의 남성3중창 조선노래 《충성의 노래》



→ 몽골전국협주단의 녀성독창과 남성소합창 조선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 월남국립기무극장예술단의 남성3중창 조선노래 《충성의 노래》



→ 몽골전국협주단의 녀성독창과 남성소합창 조선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 월남국립기무극장예술단의 남성3중창 조선노래 《충성의 노래》



→ 몽골전국협주단의 녀성독창과 남성소합창 조선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민족의 대경사, 강산을 진감하는 환호성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열의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온 나라의 련일 명절 분위기에 힘입어 꽃피는 기쁨과 환희가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은 그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오직 원수님만을 따라 끝까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최세의 결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평등하는 기간에 보통의 정치가가 수년, 수십년을 이어가면서도 이룰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셨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악과 같은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지략

을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밀려오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온 민족이 대극상을 당한 피눈물이 아득도 채 가시지 않았던 그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해오려고 때를 만만듯이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적대세력의 온갖 어리석은 망상은 또 한번의 천출위인을 모시어 산산히 부서졌다.

인민구조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자위의 제3차 시험성공으로 공화국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판문점과 장제도, 무도영양방어대를 비롯한 최대열점지역들에 끊임없이 이어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진시찰은 침략세력이 사회주의조건을 감히 넘겨다보며 어찌하려고 달려들던 단호히 오정대버릴 선군조선의 단호하고 역설 기상을 내외에 시위하였다. 하기에 세계의 언론들도 그이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변만화하는 군사

적지략에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으며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조선의 국력과 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현란한 묘기들을 보여주는데 대내, 대외를 가리지 않고 분석하면 그 특징이 변화무쌍이다.》라고 경탄의 목소리를 높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에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화원을 펼쳐주시어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창건지리 살림집들에 입사한 교육자가장, 노동자가장, 신혼부부가정을 방문하시어 사랑의 축배도 부여주시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켜 행복의 요람들을 거듭 찾으시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음악회와 체육경기도 관람하시어 원수님의 육친의 정과 같은 사랑속에서 이 땅의 날과 달이 출렀다. 그이의 현지지도창정에 펼쳐진 이런 가슴뜨거운 현연일체의 화폭들은 사랑과 정과 의리로 융합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백배해주었고 세계를 감동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

고 세련된 코드일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눈부신 비약과 전진이 이룩되었다.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져 창전지리, 은하과학자거리,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장부, 류경구장병원, 옥류아동병원,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편이어서 일떠서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도처에 솟아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은동지는 자기 실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전방사업을 쉽게 틀어쥐실수 있고 나서서 누구나 그를 따르고 그의 지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확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사상리론적예지에서 오름이시고 평등적수완과 평등방면에서 최고이시며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계시며, 철학과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풍습으로부터 건축과 산업미술, 음악과 체육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이르기까지 환히

재되고 모든 문제들에 가장 명철한 해답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실력은 온 세상을 경탄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을 평등해오신 날애 사람들은 그이의 출중한 위인상, 뛰어난 정치실력과 명칭의 인품에 반했고 그의 령도를 받들때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로라도 조국통일도 반드시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변함없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체제와 일심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었으며 강성국가건설과 문명국건설을 확신성있게 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기쁨과 긍지를 안고 그이의 평등과 더기 세차게 신심드높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우렁찬 환호성은 온 하늘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리용범

인민의 꿈과 희망이 만발하는 꽃으로

봄이 왔다. 화창한 봄날이 향긋한 기운을 풍기면서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안고 찾아왔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울레에는 류달리도 빨리 불어와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누구나 기쁨에 넘쳐 자애이 주는 이 크나큰 혜택을 한껏 감상하고있다.

만발한 꽃의 세계, 해마다 이 땅에 봄은 오고 꽃은 피지만 울레의 봄은 어이하여 남다른 감동을 안겨주며 찾아온것인가.

아름다운 저 꽃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꿈과 희망을 한껏 더 부풀게 하여주는 화창한 봄의 정서이다.

꿈과 희망,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너무나 세사롭게 쓰이던 이 말이 오늘 공화국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며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천출위인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얼마전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여 민족의 기쁨과 환희는 강산에 차넘치고 겨레는 자주통일을 향해 더욱 확신성있게 나아가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삼천리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노력해갈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누구나 행복감과 환희에 젖어 오늘의 현실을 말하고 더 아름다워질 레일을 그려보며 가슴이 벅차도록 꿈을 이야기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만 놓고보아도 얼마나 많은 꿈과 리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는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장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장병원,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 하나하나 꼽아볼수록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긍지로 자랑할 끝없이 변영하고 행복할 미래의 축도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부른다.

나날이 변모하고 흥하는 현실을 보며 이 땅의 남녘로소 누구나 기쁨을 감치 못하고 인민의 만발이 꽃피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결코 먼 앞날이 아니라는것을 가슴부듯이 체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금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실체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은정과학자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시신 위성과학자거리가 일떠서고있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하루가 다르게 차고있다.

동평양지구에 인민들의 편의를 위한 현대적인 상업거리가 일떠서고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과 함께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되고있다. 새로운 12년제 무로외무교육장형이

올해의 새 학기부터 시행되게 되어 뜻깊은 이 4월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있다.

력사의 기적은 민족의 천만년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예지와 만능의 실력, 강철의 의지를 지닌 결출한 령도자만이 안아올수 있다.

절세의 위인, 창조물 거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꽃피워지는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 온 나라 인민이 세상부러울것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회주의대화원을 이 땅우에 일떠세우실 승고한 꿈을 안으시고 불철주야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걸고계신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만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의 세상을 현실로 펼칠수 있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함으로써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는 공화국의 앞길에 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누구나 환희에 넘쳐 봄의 정수를 마음껏 즐기는 이 4월, 위대한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리며 이 땅우에는 머지않아 인민의 꿈과 리상이 더욱더 현실로 펼쳐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일떠세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자주통일의 그달을 기억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더욱더 그리워지는 어버이수령님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환생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강그리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생이었으며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애국애족의 빛나는 생이었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 통일문건에 친필을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있다.

태양절을 앞두고 전체 공화국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속에 사상과 품도, 령도와 인덕에서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또 한번의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

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은 김정은원수님께서 획기적전결을 일으키며 조국통일과 민족민족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뜻깊은 사변이다.

민족의 대경사속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은 지금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전체 성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구원을 기어이 열어나갈 불타는 결의와 신심에 찬탄되어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우리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은 모두 현실로 꽃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필생의 념원으로 간직하신 조국통일의 령사적위업도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원경일

애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태양절을 맞은 지금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일군들과 교인들의 가슴가슴은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쳐있다.

겨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애국의 심장의 마지막박동도 통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미여진다. 그이께서는 불멸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헌당도 겨레에게 안겨주시었고 승고한 민족애와 바다같이 넓은 도량으로 온 겨레를 품에 안아주시고 조국통일의 주제로 내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일군들도 몸소 만나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배려

를 다 돌려주시였다. 정녕 품은 복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안아주는 통일애국의 품이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천출위인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얼마전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여 민족의 기쁨과 환희는 강산에 차넘치고 겨레는 자주통일을 향해 더욱 확신성있게 나아가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삼천리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노력해갈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 사진전시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만 조선문화전동 《로인》 협회가 3월 30일 협회청사에서 사진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해외동포들을 접견해주시는 사진문헌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령사적인

여있었다.

주영일 협회회장과 고대춘부회장, 《통일》신문주필,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주영일회장이 발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진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어있었다.

주영일 협회회장과 고대춘부회장, 《통일》신문주필,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주영일회장이 발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진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위인칭송의 마음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쳐

*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고 *

지금 평양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4월의 봄과 더불어 열여섯 번째 년를 새기며 성황리에 열리는 김일성화축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찬세만세 높이 모시며 그이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고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2만 3 000여명의 태양의 꽃들과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특색있게 장식된 축전장에는 민족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모셔져있다.

꽃축전장에는 공화국의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다해 피운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일조문화회》 대표 가메다 노보루,

일본 에히메 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카시, 항일혁명렬사 장물화가족일행, 중국 길림육문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나라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지성이 어린 김일성화들도 있었다.

김일성화축전장에서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전시대였다.

전시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영연한 태양으로 우리러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경모의 정이 어린 600여명의 김일성화가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령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들이 되는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지향을 담아 전시대우부분에는 통일친필비를, 아래의 기본들에는 김일성화로 조 심되도록 형성하였다. 그리고 전시대들에는 주석을 민족의 어버이로, 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

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끝없는 흠모와 정성의 마음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화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시대의 맨 앞부분에 형상된 조국통일3대헌당기념탑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오신 위대한 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주고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평명정대한 통일로선과 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분할부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겨레의 어버이, 통일의 구성이시다.

국제고통련위원장 석명손, 범민련독립국가협동체 지역의장 조운해, 우즈베끼스만 고통련 위원장 주영일, 우즈베끼스만고통련 부위원장 고대춘, 국제고통련기관 지진본 《통일》주필 석미란, 국제고통련 모란봉예술단 단장 김미숙과 가수 남별동포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즈베끼스만, 로씨야에서 사

는 해외동포들의 지성이 어린 한떨기한떨기의 태양의 꽃을 보면서 우리는 이역만리에서도 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며 사는 그들의 끝없는 경모심과 아울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그 길에서 애국충정을 다해가는 애국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축전장에서 만난 재중동포 김영심은 오늘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고 조국동포들과 해외동포들, 인류의 다함없는 정성과 흠모를 받으시는 절세위인을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꼈다고, 또 한번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민족과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을 해외에서 더욱 힘차게 벌려나갔다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천송이만송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 풍기는 김일성화축전장에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는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강철

위인칭송의 태양찬가여 끝없이 울려퍼지라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성대히 개막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개막식이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참가자들이 개막식장에 도착하자 녀성취주악단의 경쾌한 주악에 맞추어 부채춤, 장고춤, 교예 등이 이채롭게 펼쳐져 개막식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가자들에게 꽃송이를 안겨주는 속에 이번 축전에 참가한 예술단체들이 소개되었다.

개막식에는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용진내각부총리,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철 문화성 부상, 관계부서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외국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대사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



고매한 품도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 장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끓어번지였다.

한철 부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조국찬가》 노래선물이 강조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

전 기발을 계양하였다.

이어 축전개막공연의 첫 지휘자인 로씨야내무성 내무부 아카데미야르주단 단장 워프르 엘리제베브가 발언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지금 평양시내의 극장들에서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공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월남국립기무극장예술단의 남성3중창 조선노래 《충성의 노래》
→ 몽골전군협주단의 녀성독창과 남성소합창 조선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우크라이나 끼예브무도극장무용단의 군무 《축배를 들자》



중국예술단(산둥성교예단)의 《발재주》